

노조는 일자리 유연성 받아들이고 정부는 실직자

적극 보호해야

옥스퍼드 퇴짜 맞고 에섹스대로 ... “작은 대학 간 계행운”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67)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노동시장 연구로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요즘 그의 시선은 유로존 위기에서 중국 경제 진단까지로 넓어지고 있다. LSE 연구실에서 이뤄진 사공일 본사 고문 겸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과의 대담이 경계를 뛰어넘어 이뤄질 수 있었던 까닭이다. 두 석학은 특히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사공=현 세계 경제 상태, 유럽연합(EU)의 앞날, 중국 경제 등 논의해 보고 싶은 주제 가 많다. 우선 최근 파리 테러 사태가 EU의 경제와 미래에 미칠 파장이 어떨까.

▶피사리데스=파리 테러가 유럽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뿐 아니라 심지어 영국마저 동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사공=하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게 하고 있을 정도다.

▶피사리데스=게다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사실 올랑드는 이전 프랑스 대통령들과 견줘 자금 문제에 몰두했다는 데, 테러 이후 국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사공=파리 테러가 당장 구체적으로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한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피사리데스=셥겐조약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셥겐조약 26개국 가운데 몇몇 나라는 탈퇴할 수도 있다. 또 이민 위기(난민사태)는 이민 테러를 계기로 더욱 난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유럽은 부채 위기에서 시작해 난민사태까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사공=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비극적인 사건(파리 테러) 자체가 EU 미래를 바꿔 놓을 만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애초 당신은 유로화 도입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최근 당신의 발언과 글에는 유로화는 오히려 유럽을 분열시키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유로화에 대한 현재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오른쪽)와 사공일 본사 고문은 일자리보다는 실업급여 등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피사리데스=유로화 도입으로 회원국 간 교역이 늘어나고 재정정책 등과 조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독일 불프강 쇼 이블레 재무장관과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뱅크 총재의 뜻을 (다른 회원국에) 강요하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적 반발과 거부감을 조장하기에 이르렀다.

▶사공=단일 통화 시스템을 해제하는 일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유로존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도 무역역곡 굴러가는(muddling through)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하나.

▶피사리데스=“무역역곡 굴러간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현재 회복 추세는 무기력하다. 차라리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사공=이제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가 화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노동시장 관련 핵심 정책 건의는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라’(protect workers, not jobs)이다. 그리고 “능동적 노동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강조한다. 한국 독자를 위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피사리데스=역동적으로 바뀌는 경제에서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된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파괴가 아주 유연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일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결국 높은 보수를 받게 되고 경제는 발전한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나치게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능동적 노동정책”, 다시 말해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고 또 일자리를 갖게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의 장기 실업률이 영국과 독일에 비해 높은 것은 “능동적 노동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사공=그런 측면에서 강성 노동조합에 의한 일자리의 과보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 과보호는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피사리데스=노조는 기본적으로 내일보다 오늘, 회사나 국가경제보다는 노조원들의 단거리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노조의 자체가 자신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사공=이와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피사리데스=정부는 근로자(workers)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한편 노조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강성노조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가 각종 사회적 전망으로 실직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자 하고 유연성을 받아들였다.

▶사공=나도 동의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 노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 일자리 창출을 막아 전체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피사리데스=옳은 말이다. 나는 정부가 곧 장 국민을 직접 상대하기 전에 노조와 소규모로 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사공=그렇다고 당신은 부유세를 부과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도마 피케티(‘21세기 자본론’ 저자)와 같은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피사리데스=나는 피케티의 극단적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책이 선봉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점 자체는 대중이 불평등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공=나도 피케티가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당면한 큰 도전의 하나인 불평등 문제에 세계적 주의를 환기시킨 것만으로도 기여했다고 본다. 이제 중국 경제를 얘기해 보자.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다. 최근에도 당신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피사리데스=아주 낙관적으로 본다. 그들의 독특한 일 처리 방식과 정책 담당자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본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전격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사전에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최고위층 결단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일처리 방식인데, 다행히 내가 보기엔 중국의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리더들은 현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사공=나도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중공은 경제 성장 속도를 줄이고 경제구조 전환으로 뉴노멀(New Normal)에 정착할 것으로 본다.

▶피사리데스=내가 보기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자 과잉이다. 여전히 국내

피사리데스 LSE 교수는 “에섹스대, 학생에게 관심 더 쏟아 노벨상 위해 연구 땀 상 못 받아 큰 주제 공부하되, 논문 자주 내라”

“큰 주제와 씨름하되 연구 중간중간에 논문 내라. 그래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단련 과정이다.”

지난달 18일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LSE 교수가 한국 의 젊은 경제학자들에게 한 조언이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가르치는 것도 좋다. 그러려면 더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논리적으로 쓰게도 된다. 지난 30년간 가르치면서 모든 걸 아우르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다. 논문으로 부족해 책으로 썼다. 그러면 그걸 응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실업에 천착한 게 1970년대였다. 학계가 그의 연구를 주목한 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였다. 다시 10여 년이 흐른 후엔

노벨상을 받았다. 노벨상위원회는 2010년 “일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왜 많은 사람이 실업 상황에 놓이는지,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탐색 이론)에 대한 답을 내놓는 데 기여했다”며 그와 데일 모텐스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는 “노벨상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가”란 사공일 본사 고문의 질문에 “노벨상을 받는 가장 안전한 길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노벨상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불굴”은 연구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키프로스의 그리스계로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열정을 쏟은 그는 영국 대학 6곳에 입학했지만 더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더 논리적으로 쓰게도 된다. 지난 30년간 가르치면서 모든 걸 아우르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다. 논문으로 부족해 책으로 썼다. 그러면 그걸 응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실업에 천착한 게 1970년대였다. 학계가 그의 연구를 주목한 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였다. 다시 10여 년이 흐른 후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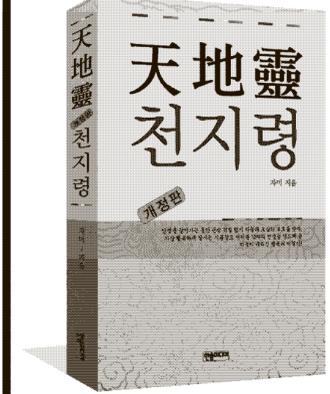
피사리데스

Sir Christopher Pissarides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1948년 키프로스 출생) / 런던정경대(LSE) 교수 / 영국 여왕이 인정한 총칭(勳章) 교수 / 2010년 노벨상 수상(실업문제 연구에 기여) / LSE대 박사 / 에섹스대 졸업(학·석·사)

하늘, 땅, 인간 모두가 기다려온 행복의 비결서!

불경, 성경, 도경을 능가하고 여러분과 가문의 생로병사, 길흉화복, 흥망성쇠를 좌우할 국민 필독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몰랐던 하늘세계, 조상세계, 영혼세계, 사후세계, 인생에 대한 새로운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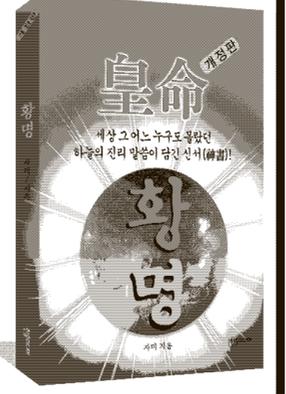


나는 누구일까? 각자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늘과 땅으로부터 받은 명은 무엇이며, 각자 자신들의 영혼은 천상계 어디에 있을까? 하늘과 땅을 만나는 모든 이들은 인생의 궁극음을 풀 수 있고, 그 운명이 바뀌어 질 수 있다. 종교 안이나 상상 속에서만 찾았던 하늘과 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곳!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 죽음, 사업실패, 금전고통, 교통사고, 우환, 질병, 우울증, 근심걱정에 대한 불안 요인들을 하늘과 땅, 신과 생명, 조상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을 이후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사후세계의 진실로 인하여 독자여러분들의 기쁨은 감동의 물결로 뜨거워질 것이다.

기준에 이미 알려진 귀신의 세계나 종교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알람이 목적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알고자 했던 하늘세계, 조상세계, 인간세계의 진실을 낱알이 밝힌 하늘과 땅이 내려주시 귀한 책이다. 책 구독 중 은 몸으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느끼게 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서. 책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차례대로 끝까지 정독하면 하늘과 땅의 신비한 기운을 느낀다.

- (책 구독이 필요한 독자들)
- ▶인생이 고통과 불행으로 힘든 자들.
 - ▶기존의 종교세계에 크게 실망한 자들.
 - ▶하늘세계, 사후세계에 대하여 궁금한 자들.
 -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하여 궁금한 자들.
 - ▶매사되는 일이 없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 ▶고통에서 벗어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자들.
 - ▶자살이나 비명횡사 당하여 죽은 가족들이 있는 자들
 - ▶각자의 몸 안에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 궁금한 자들.
 - ▶사업부진, 질병, 우환, 이혼, 부부싸움으로 불행한 자들.
 - ▶자동차 사고, 사건사고, 관재구설, 인생살이가 따르는 자들.
 - ▶머리가 늘 무겁고 신경질이 잦으며 눈물을 자주 흘리는 자들.
 - ▶하늘과 땅의 명을 받아 신인(神人)의 경지에 오르고 싶은 자들.



344쪽/12,000/자미 지음/한숨미디어

전국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영광도서, 인터넷북, 예스24 판매 중/ 농협 입금계좌 301-0111-297051 예금주 자미북 택배주문 02)3401-7400

수원경희대 정문 앞 MARK TOWER

마감임박

First Premium 수원 경희대학교 정문 바로 앞!
2만 5천여 명의 학생 및 교직원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수원 경희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Second Premium 공실률 없는 황금입지!
상상디자인시티 R5 준공 3만여 명 상주인구로 배후수요 및 투자지점 증가

Third Premium 고수익 및 세제혜택
수익률 12% 대 취득세, 재산세 면제

쾌적하고 여유로운 그린라이프

- 반달공원 경희대 캠퍼스 힐링라이프
- 보보스 스포렉스 바로 옆 Health Life 실현

쇼핑에서 생활까지 멀티플라이프

- 영통출플러스 롯데쇼핑프라자 5분거리
- 삼성노블카운터, 메가박스 초인점

광역 교통망으로 편리한 교통임지

-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5분 이내 진입
- 분당선의 연장 영동역 개통으로 강남까지 40분

【도시형생활주택】 지상 4층~14층 99세대

【근린생활시설】 1층 【주차장】 지상 2~3층

1661-5279